

독자권익위원 칼럼

김 홍 석

독자권익위원
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가곡 ‘산아’를 부르면 고향의 산과 들, 이웃의 얼굴, 비
온 뒤 흙냄새가 되살아난다. 고향은 지도 위의 한 장소를
넘어,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지낸 자신을 다시 만나는 자리
다. 가까이 있을 때는 무심히 지나친 풍경이 멀리 떠나고
세월이 흐른 뒤 더욱 선명해지는 까닭은 그곳이 삶을 지
탱해 온 기억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고향을 그리워하
는 마음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으려는 움직임이다.
필자의 추억과 정체성이 묻어나는 이 가곡을 즐겨 부르
는 이유이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귀향의 이야기를 반복해
왔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는 10년의
방랑 끝에 이타카로 돌아간다. 이는 익숙한 땅에 도착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삶의 자리를 되찾는 귀향의
여정이다. 큐브릭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인간의 기원과 미래를 향한 귀향을 그린다. 시대와 공간
은 달라도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어디에서 왔는
가’라는 물음과 맞닿아 있다. 필자가 이 작품을 세번씩이
나 감상한 이유 역시 정체성과 향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안동에서 퇴계 이황의 귀향길
을 걸으며 깨달은 것은, 이동이 빨라졌다고 마음까지 고
향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속도에 익숙
한 현대인은 목적지에 닿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누구를 만날지 놓치기 쉽다.

기고

이 건 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세삼스럽지만 무안국제공항은 지방의 요구가 아닌 정
부 공항정책에 의해 건설됐다.
1988년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토 3각축인 수도
권, 동남권, 서남권에 각각 1개의 거점 국제공항을 건설한
다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적 공항정책에 따라 호남권 신
공항(무안)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1999년 12월 공사 시작
후 8년만인 2007년 11월 한반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개
항했다.
그럼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여
객기 참사 이후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수용하기 어려
운 부분이 너무 많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후속 절
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독립적으로 수행
하는 기관으로 사고 당시에는 국토부 소관이었지만 올해
1월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로 승격 이동했다. 운영
규정에는 항공기 사고 12개월 안에 종료하고, 기간 내 끝
나지 않으면 중간보고서를 공표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그
럼에도 위원회는 참사 한 달 후인 2025년 1월 27일 사고
개요 중심 예비보고서만 공표하고, 중간보고서는 공표하
지 않고 있다.
예비보고서에 실린 다음과 같은 불리한 대목 때문에
보인다. 일부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이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고향의 산과 귀향의 본능

산과 들, 바다를 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이 질
문은 절실하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났고 마을 풍경과 이웃 관계도 변했지만, 기억 속에는
여전히 지역의 삶과 가치가 남아 있다.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보존하지 않고, 기억의 고향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고향으로 이어야 한다.
일자리·주거·교통·돌봄은 기본이며, 배우고 즐기고 이
웃과 만날 문화 환경도 필요하다. 산업과 기반시설뿐 아
니라 주민의 일상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살
고 싶은 지역이 된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6~2030)이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방향과 맞닿아 있다. 문화
예술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긴 생애를 의미 있게 채우
는 힘이다. 노래와 그림, 글쓰기는 지나온 시간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이 아니라 누구
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통로여야 한다. 인공지능이 시
·그림·음악을 만드는 시대에도 자신의 기억을 돌아보고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경험은 대체되지 않는다. 기술의
세로움보다 누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지를 먼저 물
어야 하며, 문화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 쌓인 기억을 주민과 함께 기록하고
나누는 일이 출발점이 된다. 어르신들의 생애, 오래된 사진,
마을의 소리와 음식, 생활문화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활용해 사라진 풍경을 되살릴 수
있다. 단, 기술이 재구성한 장면과 실제 기록을 구분하고
기억의 주인공이 주민이 기록과 해석에 참여해야 이야기의

신뢰와 생명력을 지킬 수 있다.
모든 이야기는 공연·전시·교육·관광으로 확장할 수 있
다. 빈집이나 쓰임이 줄어든 공간을 작은 문화 거점으로
바꾸고 주민, 지역 예술가, 청년 창작자가 함께 프로그램
을 꾸리는 방식도 가능하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청년이
영상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이를 계기로 동네를 탐색하면
문화는 세대를 잇는 생활의 일부가 된다. 이를 지속하려
면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운영 인력과 창작 여건을 마
련하는 공공·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성과도 행사 횟수
나 방문객 수뿐 아니라 주민의 참여, 새롭게 형성된 관계,
지역 창작자의 활동 기회를 함께 살펴야 한다.
고향을 떠난 사람과의 관계도 귀향의 일부로 볼 수 있
다. 당장 돌아와 살지 않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자주 방
문하며 경험을 나눌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자가
지역의 변화를 확인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지속적 관
계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번 찾은 사람이 다시 오고, 그 만남이 주민에게도 기
쁨이 되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속 풍경이 있다. 그것이 반드시 태어난 마을일
필요는 없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과 어울리며 다시 살
아갈 힘을 얻는 곳이 마음의 고향이다.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고향의 산은 돌아갈 방향을 알
려준다. 기술이 삶의 속도를 높이는 시대에 문화예술은
온기와 깊이를 더한다. 고향의 기억을 오늘의 만남과 내
일의 삶으로 잇는 일이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할 귀향의
목적지, 이타카가 아닐까.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살아야 전라권이 산다

없었을 경우 여객기가 770m를 더 활주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분석이 있었다. 사고 주
요 원인으로 조류 충돌, 랜딩기어 미작동, 방위각시설 콘
크리트 둔덕과의 충돌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공개
보다 은폐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
지 않아 무안공항 재개항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돌연 활주로 포장면 내구성 저하를 근거로 재
개항 1~2년 지연을 언급했다가 구체적인 결과와 보수계
획 미공개로 불확실성이 제기되자 사고 직접 재수색과 방
위각시설 개선, 활주로 보수 등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재개
항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진즉에 완료했어야 할 일들이
다. 문제는 재개항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
루빨리 사고조사위원회의 잠정 결과와 보고서를 공표하
고, 정확한 재개항 일시를 밝히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관광객수가 역대 최대인 1894만
명을 기록했다. 이 중 김해·제주·대구·청주·양양공항을
통한 관광객 수가 316만6889명으로 17% 수준에 달했다.
2023년 138만8447명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를 제외한 5개 공항 중심 5대 관
광권을 확정하고, 2027년 935억원을 투입하는 지방 해외
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영남권은 김해·대구공항,
충청권은 청주공항, 동해안권은 양양공항, 호남권은 무안
공항을 통해 입국부터 이동·체류·소비까지 이어지는 지
역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2025년 외국관광객이 각각 전국 대비 0.6%
로 전국 최저수준이었으며, 무안공항까지 범취있는 호남

권 해외관광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항 지연으로
내년 정부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해외관광 활성화는
난망하다. 중요 국제사업인만큼 중앙정부가 무안공항의
조기 개항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안공항을 신속히 재개항시키기 위해서는 참사의 사
법적 책임 규명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조사위원
회가 중간보고서 공표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밝혀 재개항
의 장애물을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
부의 변신과 성찰을 요청한다. 중앙정부는 총리를 중심
으로 낙후된 전라권을 살리기 위해 무안공항을 신속히 재
개항시켜야 한다.
지역에서도 나서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게 정
치권·전문가·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재개항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전·충북·충남이 협력해서 활성화시킨
청주공항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대전~청주공항간 거리(55km)가 광주~무안공항간
(40km)보다 15km가 멀지만 대전시가 2007년부터 ‘청주공
항이 살아야 충청권이 산다’며 활성화를 주도했다. 대전·
충남·충북이 공동으로 국제노선 신규 개설 항공사 결산
급 보전, 각계인사로 구성된 ‘청주국제공항 살리기 협의
회’ 구성·운영 등을 추진했다. 청주공항 이용객이 무안공
항의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이러한 충청권 상생의
결과물이다.
2028년이면 우리나라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무안공항
에 KTX가 진입한다. 이를 계기로 무안국제공항이 당초
건설 취지인 한반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우뚝 서길 기원
한다.

사설

첨단산업 정책자금, 전남광주 ‘그림의 떡’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은 말 그대로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
억원까지 저리로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통상 기업의 신청과 적정성평가,
은행 대출심사 추천,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지원이 확정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분야
의 중소·중견기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전남광주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데 있다.
사업시행이래 지난 9월 21일까지 지역에 지원된 금액이 전국의 3%
수준에 그치고 있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이를 통해 실행된 대출은 전국 107건, 2896억3000
만원인데 이중 광주 지원액은 86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3.0%를 차
지했다.
전남은 대출 실행 실적이 전무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3건, 111억6000만원을 신청해 2건, 86억6000만
원이 은행 대출심사 추천을 거쳐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고 전남은 지난
해 1건, 10억원을 신청했지만 은행 대출심사 추천 단계에서 막혔다.
이 때문인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남광주 누적 신청은 총
5건으로 전국 신청 건수(366건)의 1.4%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에는 전체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공급됐다.
서울 459억7000만원, 경기 1156억5000만원, 인천 118억6000만원 등
수도권 지원액은 총 1734억8000만원으로 전국의 59.9%를 차지했고 대
출 실행 건수도 서울 15건, 경기 39건, 인천 6건 등 총 60건이나 됐다.
이런 현상은 현행 융자사업 평가가 개발 내용과 목표의 적정성, 사업
수행 체계, 사업화 전략, 사업화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등 사업성과 기
술력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기술력과 사업화 준비
도가 높은 기업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 여건이나 산업
생태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들 정책 자금이 지역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평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사업성은 물론 지역
여건과 산업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구 ‘빈집 청년 창업 프로젝트’ 눈에 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빈집 청년 창업 채용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침체된 골목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안
정적인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 프로젝트는 동구가 지난 2020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구도심 빈집·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 등 짝수해마다 청년창업가 10개팀씩을 선정해 2
년간 입차료와 재료비, 상품개발비, 컨설팅 등을 맞춤 지원하고 있는 사
업이다.
올해도 10개팀이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40개 팀이 총장로·계림동
일원에서 창업했다. 내년까지 총 13억4690만 2000원이 지원된다.
이 프로젝트 효과는 상당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인 30명중 21명(73%)이 지금까지 지속
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후 53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는 동구 주권 라온페스타와 총장로 비어축제, 총장로
활성화 사업, 차 없는 거리 등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며 지역과 활발한
협업을 펼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회성 창업 지원을 넘어 빈집과 빈 점포를 실
제 운영 공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공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핸드메이드 소품을 판매하고 있
는 ‘판itz 공작소’는 오래된 건물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꾼 모범 사례
가 됐다.
또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립에 성공해 2호점까지 개소했고 인공
지능(AI)과 공예,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콘텐츠까지 개발하고 있다.
또 공방에서 출발해 총장로에서 화장품 제조까지 사업을 확장한
‘아로마 무드’는 무등산과 총장로, 동명동 등을 모티브로 한 향을 개발
하고 이를 문화·관광상품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등 ‘광주의 향’을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
이 때문인지 청년창업가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지난 4월 10일을 선정
하는 공모에 73명이 몰려 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다.
이 프로젝트가 총장로·계림동 등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볼거리와 체
험 콘텐츠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취재수첩

장윤기 사건이 던진 질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임 영 진

사회부 차장



‘여고생 납치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가 내려졌지
만 유가족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말을 잃은 부모에게 형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딸을 대신해 가해자가 어떤 책임

을 지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다. 잔혹한 범
행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
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야 한다는 목소리로 다시 커지고 있다.
사실 이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2023년 형
악법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
기됐다. 제도 도입을 다시 논의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사형제와의 관계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
제의 대체 형벌로 볼 것인지,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별
도의 중형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 제도의 성격과 법적
쟁점이 달라진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판결 단
계에서 가석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중형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고 유가족의 요구를 범리만으로 외면해서도
안 된다. 가족을 잃은 뒤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유가족이다. 이들에게 가해자가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 다른 불안으로 남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벌의 이름보다 실효성이다. 새로
운 형벌을 만드는 것과 함께 현행 무기징역의 가석방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최소 복역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을 어떻게 확실히 격리할
것인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피해자와 유가족
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분노를 달래기 위한 말보다 다
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의 약속
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벌과 교정, 피해자 보
호제도를 함께 돌아봐야 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박형인	차재진	사 경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역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자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
(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